

쓰고 싶은 글을 쓰는 즐거움

컴퓨터의 빈 화면을 향한 이 여름의 '용맹정진'

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여름을 잘 보내면 그 해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예로부터 전하는 우리 생활지혜다. 강렬한 햇빛속에서도 몸을 단단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겨울에 감기걱정은 안해도 좋다는 식이다.

말이 그렇지, 쇠도 녹인다는 여름더위가 아닌가. 그 더위에 지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더위에 지쳐 빠지기는 특히 도시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 성싶다.

나도 여름 지나기가 항상 두렵다. 더위를 심하게 타는 몸이라, 한여름만 되면 언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인가 전전긍긍한다. 학교에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더위에 엄살이냐고 할 것이다. 휴가기간이 고작 며칠인 여느 직장인과는 달리, 두 달씩이나 방학을 즐기는 사람은 한가한 시간이 많은 만큼 열병 일도 적을 것이고, 자유로운 시간이 많으니 정히 더우면 산야를 찾아 유유자적하면 그만일 텐데 뭘 그러느냐는 말이겠다.

하지만 제마다 사정은 있다고,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언가 보람있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작용한다. 제대로 독서를 생각해보거나, 학기중에 다 마치지 못한 글쓰기를 마무리해야겠다고 결심하면 역시 여름은 무더울 뿐이다. 그래서 여름에 오히려 생산성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혹시 어떤 사람일까, 답기는 모두 마찬가지로일 텐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결과일까 궁금해진다.

여름이면 생기가 더 난다는 사람에는 운동가들 가운데 더러 있다고 들었다. 국내 야구선수중에 여름이 오면 오히려 필필 난다는 사람이 있다 한다. 미국 프로야구선수중에 70년대의 강타자로 알려진 레기 잭슨이 있었다. 그의 별칭은 '미스터 옥tober' 곧 10월의 사나이라는 뜻이다. 미국의 서부쪽은 9월과 10월이 가장 더운 계절에 든다. 인디언 섬머라 해서 우리 한 여름 더위중에서도 최고 더위인 섭씨 35도를 예사로 웃돈다. 바로 그때 피력의 흠련을 연발한다고 해서 붙여진 별칭이다.

내가 존경했던 서양화단의 거목 장옥진(1917-1990)도 여름의 화가였다. 과작의 화가로 알려진 장옥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여름이 오면 부쩍 창작의욕이 발동하여 다수의 작품을 완성하곤 했다. 가족의 말로는 더위를 타지 않는 체질 때문이라 했다.

어쩌서 그럴까. 독실한 불교신자인 부인은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불교적으로 말하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용맹정진'인데 거기에 돌입하다보면 더위는 온데간데 없지 않을까, 그런 풀이였다. 그 말을 잠자코 듣던 화가는 "나는 정진이란 그런 말은 모른다. 나와 화면과의 씨름이 있을 뿐"이라 했다.

여름을 이겨내는 데 정진은 무엇이며, 작가와 화면과의 씨름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점이 나에게 알쏭달쏭했다. 그 이상을 캐물을 수도 없었다. 비록 자세한 설명을 던져준다 해도 언뜻 실감날 말도 아닐 성싶었다.

그건 그렇고 요즘 나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꿈꿈이 생각하는 때가 많아지고 있다. 진정으로 살아가는 재미라 할까,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혼자 따져보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재미의 으뜸은 주말마다 가는 산행이다. 주말이면 만사 제쳐두고 산을 오른다. 여러 코스를 번갈아가지만 산은 대체로 한 곳이다. 북한산이다. 웬만큼 비가 와도 산을 찾는다. 눈덮인 산도 빠짐없이 오른다. 여름에 가족과 짧은 피서여행을 할 때도 바다가 아니라 꼭 산을 택한다. 작년 여름, 가족들은 지리산 자락 호텔의 에어컨 바람을 즐기라 해두고, 홀로 지리산 노고단을 다녀왔다.

주말 산행이건 휴가철 산행이건, 그건 일을 통해 여름을 이겨내는 방식이 아니다. 그런데

이즈음 다행스럽게도 나는 일로서도 여름을 맞부딪힐 수 있다는 생각이 슬금슬금 들기 시작한다. 장옥진의 여름나기가 이런 것일 거라는 생각마저 든다.

산행의 기쁨에 비견할 것은 아니지만, 나는 이런 저런 글을 쓰고자 자리에 앉았을 때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어렴풋이 잡혀간다는 그런 기분을 느낀다. 원고지로 글을 쓰지 않은지 오래됐으니 나는 컴퓨터의 빈 화면앞에 마주 앉는다. 비어 있는 화면을 메꾼다고 생각하면 아득하고 막연한 마음이 가슴을 짓누른다. 생각이 흐르지 않아 연방 담배를 피워댄다.

그러곤 다시 빈 화면을 바라본다. 몇마디 생각을 지탱해줄 낱말이 떠오르면 적고 그 다음 말을 이어가고자 다시 화면과의 싸움이 계속된다. 그땐 한 치의 잡생각은 없다. 오로지 화면을 향한 전력투구가 있을 뿐이다. 옆에서 무어라 해도 오볼관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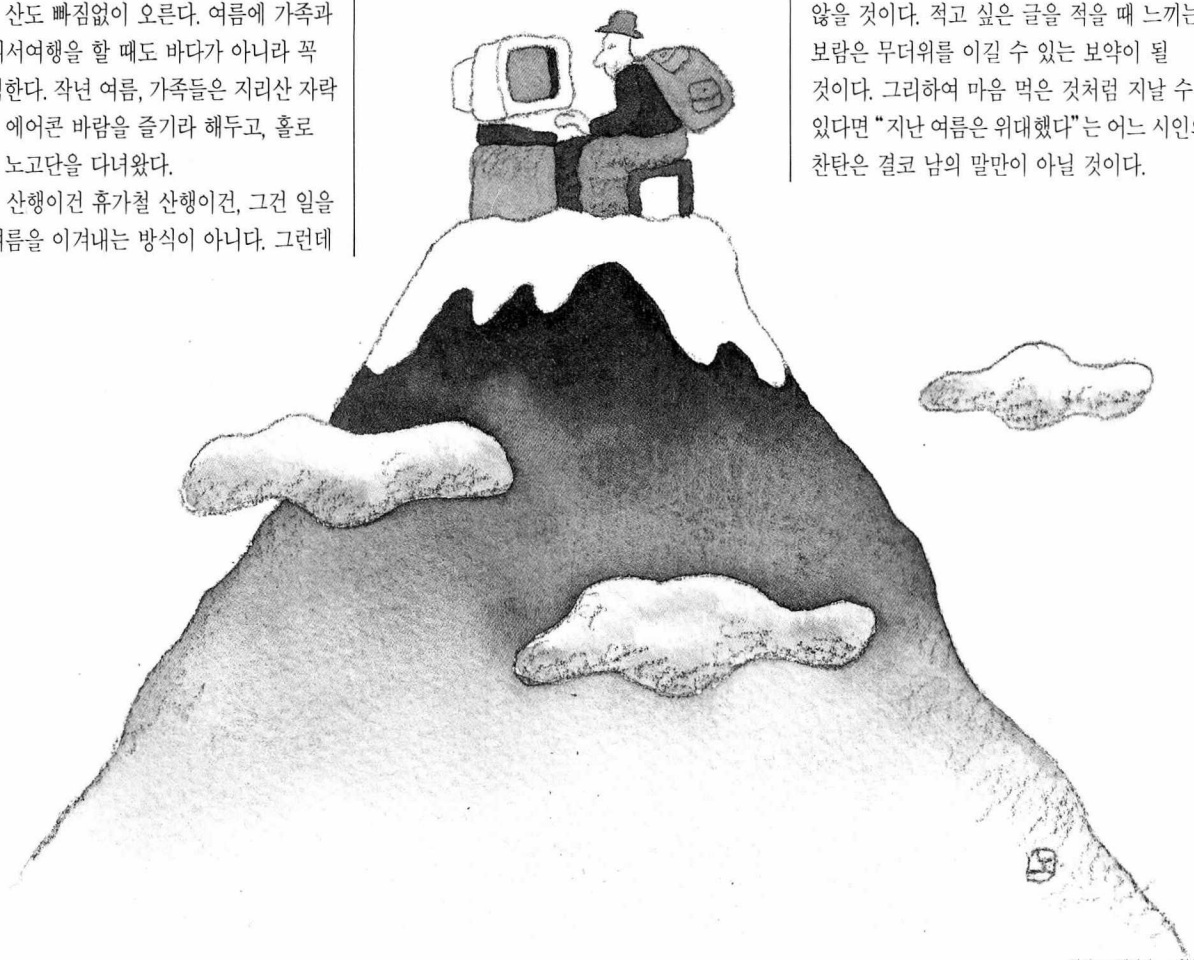
내가 아는 전부를 화면으로 던지는 일

뿐이다. 그러다 보면 온 세상에 오로지 나와 화면이 있을 뿐이다. 마침내 나와 화면은 일체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변변찮은 글이라도 완성된다.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의 막막함, 글을 진행하던 도중에 답답함은 언제인가 싶게 완성품 거기에 나의 흔적, 나의 분신이 있음을 깨닫는다. 그게 바로 나의 보람이고, 거기서 삶의 본질을 느낀다.

얼마전부터 글쓰기에 내 나름의 고집을 더욱 굳혀가기로 마음을 먹고 있다. 남이 칭하는 글을 쓰지 않기로. 마치못해 남의 칭에 따라 적어야 할 경우는 적어도 주제는 내가 정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대신, 나의 내면속에서 자연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우리나라는 발심이 가리키는대로 글을 써야겠다고 다짐한다. 이런 글일수록 컴퓨터 화면속으로 나의 모두가 빨리 들어가서, 글과 내가 쉽게 하나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여름, 내가 적고 싶은 글을 간간히 적으면서 산행도 즐길 수 있다면 그리 무덥지 않을 것이다. 적고 싶은 글을 적을 때 느끼는 보람은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보약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마음 먹은 것처럼 지낼 수 있다면 "지난 여름은 위대했다"는 어느 시인의 찬탄은 결코 남의 말만이 아닐 것이다.



일러스트레이션 노희성